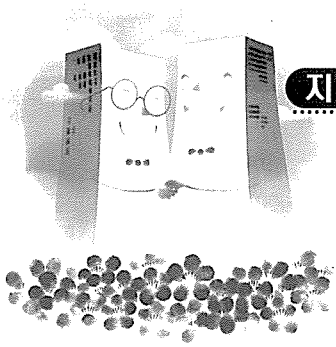

지부탐방

부산시민의 건강을 함께하는

부산광역시지부

부산시민에게 친숙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동래에 있는 종합검진센타로 갑시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말하면 기사는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안내를 해준다. 부산시내에 종합검진센터가 여러 개 있지만 부산시민이 손쉽게 이용하고 문턱이 낮은 검진기관은 건강관리협회이다.

아침식사를 거르고 현관에 들어서면 안내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되는데 아침일찍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자세에서, 친절서비스 정신이 몸에 배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길에서 본 건물과는 달리 실내에 들어서면 호텔같은 분위기의 시설과 웃음으로 반기는 직원들의 인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편안한 종합검사

1층에서 접수상담과 수납 후 2층 중앙검진실에 올라가면 부산에서 최초로 구입한 생화학 자동분석기 등 최신장비를 한눈에 접하면서 직접 검사결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층에서는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면서 간호사의 설명과 함께 3층 영상진단실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3층 영상검사실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초음파검사실. 내원자의 신속한검진을 위해 3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며 위장검사, 유방암검사, 흉부촬영, 골다공증검사, 각부위 CT검진 등 영상진단분야의 검진은 모두 3층 검사실에서 이루어진다.

세명의 방사선전문의들이 직접 초음파검진을 실시하고 정확한 판독으로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위장조영촬영과 같은 고가의 장비도 6대나 갖추고 있어 내원자들의 신속한 검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계단을 올라가면서 층마다 설치된 작은 박물관을 볼 수가 있다

여기에는 과거 검진장비 등 검사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2층에 있는 기생충박물관과 함께 건강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학교 및 유치원 등에 견학의 기회도 제공한다.

4층 기초검사실에서는 모든 기초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 즉 심전도 · 폐기능 · 안저안압 · 자궁암검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건강생활실천과 관련한 건강상담도 이루어진다.

스트레스 · 체성분 검사 등 검사자들의 건강을 다방면에서 체크하기 위해 종합검진의 순서에 맞추어 실시한다

4층까지의 검사를 모두 마치면 검사 중 긴장된 근육을 풀어 주기 위한 수침대와 롤링베드 치료가 행해진다.

또한 오후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물리치료실 개방이 이뤄지는데,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상담실도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실천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5층 국가암 검진센터는 보건정책상 필요로 하는 검진

및 집단검진이 이루어지며 한 층에서 모든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산시내 60여개 의료기관과 협약체결

검진 후 유소견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60개의 협약병원으로 안내하여 재검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월2회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유소견자와 가족을 위하여 부산의 저명한 전문의의 강의와 상담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부의 검진프로그램을 보면 정밀종합검사, 알뜰종합검사, 각종암검사, 부분선택검사, 갱년기여성검사, 혼전검사, 학생건강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검자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 대한 척추측만증검진사업 전개

2002년, 부산에서는 최초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여 학생 10명중 1명 꼴로 자세 이상자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중 8명은 즉시 치료가 필요한 대상군으로 분류되어 부모들의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또한 국가 암검진사업 및 시 위탁예산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부산시민에 대한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2002월드컵 축구대회 및 아시안게임, 아 · 태장애인 경기대회 등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보건계몽 및 건강생활 실천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특히 월드컵축구대회 기간인 2002년 6월 6일과 7일 양일간 프랑스축구스타 지네딘지단이 협회를 방문하여 근력테스트를 하는 장면, 지단의 한국내 동정, 협회의 우수한 검진시설 등의 내용이 당일 저녁 MBC, KBS,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스포츠투데이 등 공중파방송사와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였으며, 프랑스의 국영방송이 프랑스축구단의 동정보도를 하면서 한국건강관리협회검진시설을 알리는 등,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우수검진시설을 알리게 되었다.

2003년에 달라지는 부산지부

내원자 편의를 위해 현재 5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여, 이용객의 쾌적한 검진환경조성에 힘쓰며, 엘리베이터를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내 지하철 1, 2호선 696량의 차량내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국민건강증진 캠페인용 모서리광고판을 부착할 계획이며, 2000년을 원년으로 KBS-부산방송총국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민건강관리대행진"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어려운 사람들의 질병조기발견기회 제공함으로써 공익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우수기관 견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1인 1기 교육기회도 제공하며 근무시간외 학원수강 및 학교진학 편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 부산지부는 시설확충과 최첨단장비를 보강하여 검진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힘쓰고 공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것이며, 부산에서는 명실공히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서 직원들의 투철한 주인의식과 봉사정신으로서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